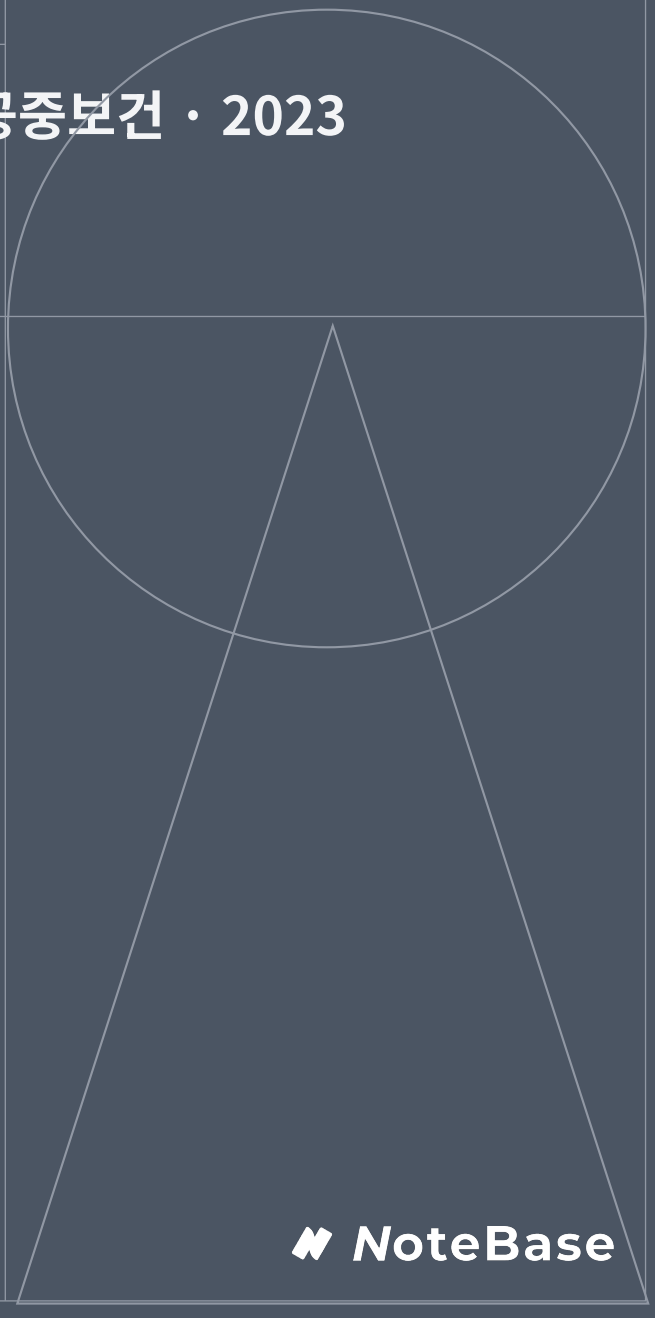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3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3

1.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의 목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평균수명 연장, 의료 기술의 향상
② 건강수명 연장, 국민 의료비의 상승 억제
③ 평균수명 연장, 보건 의료 사업의 활성화
④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의 두 가지 총괄목표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건강수명 연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질병이나 장애로 건강하지 못한 기간을 줄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건강형평성 제고는 소득·지역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HP 2030은 이 두 개념을 총괄목표로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평균수명 연장'과 '의료 기술의 향상'은 HP 2030의 두 가지 총괄목표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② X — '건강수명 연장'은 맞지만, '국민 의료비의 상승 억제'는 총괄목표가 아니다. '국민 의료비의 상승 억제'를 '건강형평성 제고'로 고쳐야 한다.
③ X — '평균수명 연장'과 '보건 의료 사업의 활성화'는 총괄목표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④ O —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는 HP 2030이 제시한 두 가지 총괄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을 혼동하기 쉽고, 의료 기술 향상·의료비 상승 억제·보건 의료 사업 활성화처럼 보건정책과 관련 있어 보이는 표현을 총괄목표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정책 수단이나 기대 효과가 아니라 HP 2030에 명시된 두 목표를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HP 2030의 목표를 물으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해당하는 건강수명과 ‘집단 간 건강 격차를 얼마나 줄이는가’에 해당하는 건강형평성을 한 쌍으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HP 2030의 두 축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NoteBase

2. 공중보건의 대상 영역에서 환경 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역학 ② 산업보건

③ 보건교육 ④ 기생충 질환 관리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공중보건의 대상 영역 가운데 환경보건 분야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경보건은 생활·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관리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분야이며, 환경위생·식품위생·산업보건 등이 포함된다. 질병관리 분야에는 역학과 감염병·기생충질환 관리 등이, 보건관리 분야에는 보건행정과 보건교육 등이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역학은 질병의 발생과 분포 및 관련 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분야로, 이 분류에서는 질병관리 분야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환경보건 분야의 역학'이며, 올바르게는 '질병관리 분야의 역학'이다.
② O — 산업보건은 작업환경의 유해 요인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므로 환경보건 분야에 해당한다.
③ X — 보건교육은 개인과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지식·태도·행동을 갖도록 돕는 활동으로, 이 분류에서는 보건관리 분야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환경보건 분야의 보건교육'이며, 올바르게는 '보건관리 분야의 보건교육'이다.
④ X — 기생충 질환 관리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가 중심이므로 질병관리 분야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환경보건 분야의 기생충 질환 관리'이며, 올바르게는 '질병관리 분야의 기생충 질환 관리'이다.

오답 포인트

'산업'이라는 말 때문에 산업보건을 보건관리로 오인하기 쉽다. 산업보건은 사업장이라는 환경의 유해 요인을 다루므로 환경보건에 속한다. 반면 역학과 기생충 질환 관리는 질병관리, 보건교육은 보건관리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경이나 작업장의 유해 요인을 다루면 환경보건, 질병의 발생·예방·관리를 다루면 질병관리, 보건사업의 운영·교육을 다루면 보건관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환경보건은 환경위생·식품위생·산업보건, 질병관리는 역학·기생충질환 관리, 보건관리는 보건교육이다.

NoteBase

3. 〈보기〉에서 감염병과 예방백신을 옳게 짝지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결핵 – HPV
ㄴ. 수두 – VAR
ㄷ. 일본뇌염 – IPV
ㄹ.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Hi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감염병의 명칭과 해당 예방백신의 영문 약어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CG는 결핵 예방백신, HPV 백신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예방백신이다.
VAR은 수두 예방백신이다.
일본뇌염 예방백신은 JE 계열로 구분하며, IPV는 불활성화 폴리오 예방백신이다.
Hib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증 예방백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결핵－HPV'가 틀렸다. 결핵 예방백신은 BCG이고, VAR은 수두 예방백신이므로 옳은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ㄱ의 '결핵－HPV'와 ㄷ의 '일본뇌염－IPV'가 모두 틀렸다. 결핵은 BCG, 일본뇌염은 JE 계열 예방백신과 연결하며, HPV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고 IPV는 불활성화 폴리오 백신이다.

③ X
ㄴ의 '수두－VAR'은 맞지만 ㄷ의 '일본뇌염－IPV'가 틀렸다. 일본뇌염은 JE 계열 예방백신과 연결하고, IPV는 불활성화 폴리오 예방백신이다. 따라서 ㄴ, ㄷ이 아니라 ㄴ, ㄹ이 옳다.

④ O
ㄴ의 VAR은 수두 예방백신이고, ㄹ의 Hib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증 예방백신이다. 두 연결이 모두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질병명의 영문 약어처럼 보이는 표기에 끌리는 것이 함정이다. HPV는 결핵이 아니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IPV는 일본뇌염이 아니라 폴리오와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백신 약어를 질병명과 한 쌍으로 대조한다. VAR－수두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맞고, 결핵은 BCG, 폴리오는 IPV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결핵－BCG, 수두－VAR, 폴리오－IPV,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4. 중금속과 중독 증상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납 – 구내염, 근육진전, 정신증상
② 수은 – 피부궤양, 비중격천공, 천식
③ 카드뮴 – 단백뇨, 골격계 장애(골연화증, 골다공증)
④ 크롬 – 근육통, 소화기 증상, 빈혈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대표적인 중금속별 표적 장기와 만성 중독 증상을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납은 조혈계·신경계·소화기에 영향을 주어 빈혈, 복부 산통, 근육 약화나 마비 등을 일으킨다. 수은은 구내염, 손 떨림 같은 진전, 신경·정신 증상이 특징이다. 카드뮴은 신세뇨관과 뼈를 손상하여 단백뇨와 골연화증·골다공증을 일으킨다. 크롬은 피부와 호흡기를 자극하여 피부궤양, 비중격천공,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구내염, 근육진전, 정신증상을 '납'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증상은 수은 중독의 대표 증상이다. 납 중독은 빈혈, 복부 산통, 말초신경장애와 근육 약화·마비 등이 대표적이다.
② X — 피부궤양, 비중격천공, 천식을 '수은'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피부·호흡기 증상은 크롬 중독의 대표 증상이다.
③ O — 카드뮴은 신세뇨관을 손상하여 단백뇨를 일으키고, 칼슘 대사와 뼈에 영향을 주어 골연화증·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 근육통, 소화기 증상, 빈혈을 '크롬'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이 증상군은 납 중독과 연결되며, 크롬 중독의 대표 증상은 피부궤양, 비중격천공, 천식 등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수은과 크롬의 대표 증상을 다른 금속에 붙여 놓았고, ④는 납에서 볼 수 있는 빈혈·소화기 및 근육 증상을 크롬과 연결해 혼동을 유도한다. 특히 카드뮴의 신장 손상과 뼈 손상을 한 묶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증상을 표적 장기별로 묶어 판단한다. 단백뇨와 뼈 장애이면 카드뮴, 구내염·진전·정신 증상이면 수은, 피부궤양·비중격천공이면 크롬, 빈혈·복부 산통·말초신경장애이면 납으로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카드뮴은 콩팥과 뼈, 수은은 입·떨림·정신, 크롬은 피부·코, 납은 빈혈·배·신경이다.

NoteBase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속하며 리케차에 의한 감염병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수병 ② 발진열

③ 브루셀라증 ④ 디프테리아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감염병예방법상 제3급감염병의 분류와 각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를 함께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제3급감염병이라는 법정 분류와 리케차 감염병이라는 병원체 분류를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제3급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리케차 = 숙주 세포 안에서 증식하는 세균군이며, 발진열의 원인체인 Rickettsia typhi가 이에 속한다.

핵심 구분

감염병예방법 제2조상 발진열은 제3급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진단 기준상 발진열은 Rickettsia typh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공수병과 브루셀라증도 제3급감염병이지만 각각 바이러스와 브루셀라균에 의한 감염병이고, 디프테리아는 제1급감염병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수병은 제3급감염병이지만 공수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므로 리케차 감염병이 아니다.
틀린 표현: 리케차에 의한 공수병
올바른 표현: 공수병은 공수병 바이러스에 의한 제3급감염병이다.

② O
발진열은 제3급감염병이며 Rickettsia typhi에 의해 발생하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③ X
브루셀라증은 제3급감염병이지만 Brucella 속 세균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리케차 감염병이 아니다.
틀린 표현: 리케차에 의한 브루셀라증
올바른 표현: 브루셀라증은 Brucella 속 세균에 의한 제3급감염병이다.

④ X
디프테리아는 제3급감염병이 아니라 제1급감염병이며, 디프테리아균에 의해 발생하므로 리케차 감염병도 아니다.
틀린 표현: 제3급이면서 리케차에 의한 디프테리아
올바른 표현: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에 의한 제1급감염병이다.

오답 포인트

① 공수병과 ③ 브루셀라증도 제3급감염병이라는 점만 보고 고르면 틀린다. 문제는 '제3급감염병'과 '리케차에 의한 감염병'이라는 두 조건의 교집합을 묻고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선지가 해당 법정 감염병 급수에 속하는지 확인한 뒤, 원인 병원체가 바이러스·일반 세균·리케차 중 무엇인지 대조한다. 복수 조건형 문항에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선지만 정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발진열은 제3급, 원인체는 Rickettsia typhi이다.

NoteBase

6. 〈보기〉에서 열경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수의근에 유통성 경련 발작이 발생한다.
ㄴ. 지나친 발한에 의한 탈수와 체내 염화나트륨의 감소가 원인이다.
ㄷ. 체온조절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가 원인이다.
ㄹ. 순환기계 이상 시 강심제를 투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열경련의 주된 원인과 증상을 열사병의 병태 및 처치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심하게 땀을 흘린 뒤 수분과 염분이 소실되어 복부·팔·다리 등의 수의근에 통증성 경련이 생기는 열질환이다. 기본 처치는 시원한 곳에서 활동을 멈추고 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다. 체온 조절 기능의 상실과 중추신경계 이상은 열경련보다 중증인 열사병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은 모두 옳다. 열경련에서는 수의근에 통증성 경련이 나타나며, 지나친 발한으로 수분과 염분이 소실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시상하부를 포함한 체온 조절 기능의 장애로 체온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열사병의 특징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ㄷ은 '열경련은 발한에 따른 수분·염분 소실로 발생한다'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ㄷ과 ㄹ은 모두 틀렸다. ㄷ의 체온 조절 기능 장애는 열사병에 해당한다. 또한 열경련의 일반적인 처치는 강심제 투여가 아니라 활동 중단, 시원한 장소에서의 휴식,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열경련과 열사병을 같은 열질환이라는 이유로 혼동하기 쉽다. ㄷ의 '시상하부 기능 장애'와 ㄹ의 '강심제 투여'는 단순한 근육 경련과 염분 소실을 설명하는 표현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육의 통증성 경련과 다량 발한 뒤 수분·염분 소실이 제시되면 열경련으로 판단한다. 체온 조절 실패, 매우 높은 체온, 의식 변화가 제시되면 열사병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열경련은 '땀으로 물·소금 소실 → 수의근 통증성 경련'으로 연결한다.

NoteBase

7. 기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불감기류는 기류가 0.5m/sec 이하일 때를 말한다.
② 불감기류는 인체의 냉한에 대한 저항력을 낮춘다.
③ 기온이 체온보다 낮을 경우 기류는 무덥게 느껴진다.
④ 실외의 경우 0.2~0.3m/sec의 기류가 항상 있어서 자연환기의 원동력이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기류의 세기에 따른 불감기류의 기준, 기류가 체감온도와 자연환기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류는 공기의 움직임이며, 피부 주위의 더운 공기층을 제거하여 대류와 증발에 의한 열 방출을 변화시킨다.
불감기류는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미약한 기류로, 보통 풍속이 0.5m/s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자연환기는 일정한 실외 풍속 자체가 아니라 바람에 의한 풍압과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한 굴뚝효과를 주된 동력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불감기류는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운 약한 공기 흐름이며, 일반적으로 기류가 0.5m/s 이하일 때를 말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냉한에 대한 저항력을 낮춘다'이다. 미약한 기류는 피부를 적절히 자극하여 냉한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저항력을 높인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기온이 체온보다 낮을 경우 기류는 무덥게 느껴진다'이다. 기온이 체온보다 낮으면 움직이는 공기가 피부의 열을 빼앗아 시원하거나 차갑게 느껴지므로, '시원하게 느껴진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실외에는 0.2 ~ 0.3m/s의 기류가 항상 있어 자연환기의 원동력이 된다'이다. 실외 기류는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자연환기의 원동력은 바람에 의한 풍압과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한 압력 차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낮춘다'는 방향을 반대로 바꾼 표현이고, ③은 체온보다 낮은 공기가 열을 빼앗는 효과를 반대로 서술한 표현이다. ④에서는 특정 풍속이 '항상' 존재한다는 절대적 표현과 자연환기의 실제 동력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감기류의 수치 기준은 0.5m/s 이하로 판단한다. 기온이 체온보다 낮을 때 기류가 강해지면 열 방출이 증가하여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자연환기는 풍압과 실내외 온도 차가 만드는 압력 차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불감기류는 0.5m/s 이하, 찬 공기의 흐름은 열을 빼앗고, 자연환기의 동력은 풍압과 온도 차이다.

NoteBase

8. 세균성 식중독의 특성을 〈보기〉와 같이 비교하였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구분	감염형 식중독	독소형 식중독
ㄱ	독소	체내독소	체외독소
ㄴ	종류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보툴리누스균, 포도상구균
ㄷ	잠복기	길다.	짧다.
ㄹ	가열에 의한 예방 가능성	예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예방 가능하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을 독소의 생성 장소, 대표 원인균, 잠복기, 가열 예방 가능성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염형 식중독은 살아 있는 원인균을 섭취한 뒤 균이 체내에서 증식하거나 독소를 만들어 증상을 일으키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과 장염비브리오균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독소형보다 잠복기가 길다.
독소형 식중독은 식품 속에서 미리 만들어진 독소를 섭취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보툴리누스균과 포도상구균이 있으며, 이미 형성된 독소가 빠르게 작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짧다.
가열 예방은 반대로 정리해야 한다. 감염형은 충분한 가열로 살아 있는 균을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독소형은 이미 만들어진 내열성 독소가 남을 수 있어 가열만으로 항상 예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ㄱ, ㄴ, ㄷ은 옳고 ㄹ은 틀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감염형은 충분한 가열로 원인균을 제거하여 예방할 수 있고, 독소형은 이미 생성된 독소 때문에 가열만으로 예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ㄱ, ㄹ'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ㄱ의 독소 생성 장소, ㄴ의 대표 원인균, ㄷ의 잠복기 비교가 모두 옳다. 감염형은 체내에서 작용이 진행되어 잠복기가 비교적 길고, 독소형은 식품에 이미 형성된 독소를 섭취하므로 잠복기가 비교적 짧다.
③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이 틀렸고, 옳은 ㄷ이 빠졌다. 감염형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길고 독소형은 짧으므로 'ㄱ, ㄴ, ㄹ'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 감염형은 체내에서, 독소형은 체외인 식품에서 미리 생성된 독소가 주로 문제 되므로 'ㄴ, ㄷ, ㄹ'은 'ㄱ,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ㄹ의 가열 예방 가능성을 서로 뒤바꾼 표현이 핵심 함정이다. 독소형이라는 이름만 보고 가열하면 독소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포도상구균 장독소처럼 내열성이 강한 독소는 가열 후에도 남을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섭취하는 것이 살아 있는 균인지, 식품에 미리 만들어진 독소인지 구분한다. 살아 있는 균을 섭취하는 감염형은 체내독소·긴 잠복기·가열로 균 제거, 미리 만들어진 독소를 섭취하는 독소형은 체외독소·짧은 잠복기·가열 후 독소 잔존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감염형은 '균이 들어와 체내에서, 비교적 늦게', 독소형은 '독소가 음식에 이미, 비교적 빨리'이다.

NoteBase

9. 식품의 변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부패는 탄수화물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는 것이다.
② 변패는 단백질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변질되는 것이다.
③ 산패는 지방이 주로 산화되어 변질되는 것이다.
④ 발효는 지방 식품에 미생물이 증식하여 분해되는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식품 성분과 변질 유형을 연결하여 부패·변패·산패·발효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패는 단백질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불쾌한 냄새나 유해 물질을 만드는 변질이다. 변패는 탄수화물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변질되는 현상이다. 산패는 지방이 주로 산화되어 맛과 냄새가 나빠지는 변질이다. 발효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사람에게 유용한 생성물을 만드는 변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탄수화물 식품'이다. 부패는 단백질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는 현상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단백질 식품'이다. 이 문항의 분류에서 변패는 탄수화물 식품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변질되는 현상이다.
③ O — 산패는 지방이 산소와 반응하여 주로 산화되면서 맛과 냄새가 나빠지는 변질이므로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지방 식품'이다. 발효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유용한 생성물을 만드는 변화이다.

오답 포인트

①·②·④는 미생물이 작용한다는 공통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결정적인 구분은 대상 성분과 변화의 유용성이다. 단백질의 해로운 분해는 부패, 탄수화물의 해로운 변질은 변패, 탄수화물의 유용한 변화는 발효이며, 지방의 산화는 산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먼저 식품 성분을 확인한다. 단백질이면 부패, 지방의 산화이면 산패로 판단하고, 탄수화물의 변화는 해로운 변질인지 유용한 발효인지 구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단백질-부패, 탄수화물-변패·발효, 지방 산화-산패로 연결한다.

NoteBase

10. 레벨과 클라크(Leavell & Clark)가 제시한 질병 예방 활동 중 2차적 예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예방접종 ② 보건교육
③ 상수처리 ④ 조기진단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레벨과 클라크의 질병 예방 단계에서 1차적 예방과 2차적 예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차적 예방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을 증진하고 원인에 대한 특수 방어를 시행하는 단계이다. 보건교육, 예방접종, 안전한 식수 공급 등이 해당한다.
2차적 예방은 질병이 발생한 뒤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치료함으로써 진행과 악화를 막는 단계이다. 핵심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예방접종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면역을 형성하는 특수예방이므로 1차적 예방이다. 틀린 분류를 고치면 '예방접종은 1차적 예방에 해당한다'이다.
② X — 보건교육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위험요인을 줄여 질병 발생을 막는 건강증진 활동이므로 1차적 예방이다. 틀린 분류를 고치면 '보건교육은 1차적 예방에 해당한다'이다.
③ X — 상수처리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여 수인성 질환의 발생 자체를 막는 환경위생 활동이므로 1차적 예방이다. 틀린 분류를 고치면 '상수처리는 1차적 예방에 해당한다'이다.
④ O — 조기진단은 이미 시작된 질병을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찾아 조기치료로 연결하는 활동이므로 2차적 예방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예방접종과 상수처리도 질병 예방 활동이라는 점만 보고 2차적 예방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질병 발생 전의 예방접종·보건교육·상수처리는 1차적 예방이고, 질병 발생 후의 조기 발견인 조기진단은 2차적 예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병이 생기기 전의 건강증진·특수예방이면 1차, 질병을 일찍 찾아 치료하는 활동이면 2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차는 발생 전 예방, 2차는 조기진단·조기치료이다.

NoteBase

11.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폴리오 3차 예방접종을 하였다. 추가 접종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생후 12~15개월 ② 생후 15~18개월
③ 만 4~6세 ④ 만 12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폴리오 불활성화 백신(IPV)의 기초접종과 추가접종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폴리오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하고 만 4~6세에 1회 추가접종을 하는 일정이다. 3차 기초접종은 생후 6~18개월에 할 수 있지만, 이미 생후 6개월에 3차 접종을 마쳤다면 다음 정기 접종은 만 4~6세의 추가접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생후 12~15개월'은 폴리오 4차 추가접종 시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만 4~6세에 추가접종한다.
② X — '생후 15~18개월'은 폴리오 4차 추가접종 시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만 4~6세에 추가접종한다.
③ O — 폴리오 3회 기초접종을 마친 영아는 만 4~6세에 4차 추가접종을 한다.
④ X — '만 12세'는 소아의 정기 폴리오 추가접종 시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만 4~6세에 추가접종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의 시기와 혼동하도록 만든 선지이다. 폴리오는 3차 기초접종 뒤 생후 12~18개월에 바로 한 번 더 맞는 일정이 아니라, 만 4~6세에 4차 추가접종을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폴리오 접종 문제에서는 먼저 3회의 기초접종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완료했다면 다음 추가접종 시기를 만 4~6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폴리오 IPV는 2개월·4개월·6개월 기초 3회, 만 4~6세 추가 1회이다.

NoteBase

12.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건교육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집단의 구성원이 많아서 모두 토론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그룹 토의를 하는 방법이다. 선정된 4~7명의 발표자가 자신의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참여한 청중들은 전문가의 토론을 들으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태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① 패널토의 ② 심포지엄
③ 세미나 ④ 집단토의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건교육의 집단교육 방법을 참여 인원과 진행 방식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핵심은 소수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서로 토론하고, 청중은 이를 들으며 학습한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패널토의는 4~7명 정도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특정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심포지엄은 여러 전문가가 하나의 주제를 각자의 관점에서 차례로 발표하는 방식이다. 세미나는 비교적 소수의 구성원이 특정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토의하는 방식이다. 집단토의는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수의 전문가가 다수의 청중 앞에서 그룹 토의를 하고, 4~7명의 발표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설명은 패널토의의 특징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심포지엄'이다. 심포지엄은 전문가들이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차례로 발표하는 방식이며, 보기처럼 전문가들이 청중 앞에서 상호 토론하는 방식은 패널토의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비교적 소수의 참가자가 특정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토의하는 방식이며, 소수 전문가가 다수 청중 앞에서 토론하는 방식은 패널토의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집단토의'이다. 집단토의는 구성원들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며, 구성원이 많아 모두 참여하기 어려울 때 소수 전문가의 토론을 청중이 듣는 방식은 패널토의이다.

오답 포인트

'전문가 여러 명'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심포지엄을 고르기 쉽다. 전문가가 차례로 발표하면 심포지엄이고, 전문가끼리 청중 앞에서 토론하면 패널토의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청중 앞에서 소수 전문가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지는 패널토의, 전문가가 각자 맡은 내용을 연속 발표하는지는 심포지엄으로 판단한다. 전체 구성원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면 집단토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패널은 전문가끼리 토론, 심포지엄은 전문가별 연속 발표이다.

NoteBase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감염병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우리나라 여름철에 발생하는 대표 수인성 감염병이다.
- 감염 부위는 장의 림프조직이나 담낭 및 신장 등이다.
- 40℃ 전후의 고열, 서맥, 장밋빛의 발진 등이 나타난다.

① 콜레라 ② 폴리오
③ 세균성이질 ④ 장티푸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인성 감염병의 호발 시기, 감염 부위, 주요 증상을 종합하여 해당 질환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장티푸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며 장의 림프조직을 침범하고, 지속되는 고열과 서맥, 장밋빛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수인성 감염병이다. 제시된 세 단서가 모두 장티푸스의 특징과 일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콜레라는 주로 소장을 침범하여 심한 물 같은 설사와 탈수를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40℃ 전후의 고열, 서맥, 장밋빛 발진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질환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콜레라'이며, 올바르게는 '장티푸스'이다.

② X
폴리오는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될 수 있지만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면 이완성 마비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제시된 고열·서맥·장밋빛 발진의 조합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폴리오'이며, 올바르게는 '장티푸스'이다.

③ X
세균성이질은 주로 대장을 침범하여 점액과 피가 섞인 설사, 복통, 뒤무직 등을 일으킨다. 장의 림프조직 침범과 장밋빛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제시문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세균성이질'이며, 올바르게는 '장티푸스'이다.

④ O
장티푸스는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으로 장의 림프조직을 침범하고 담낭 등에 균이 남을 수 있다. 지속되는 고열, 상대적 서맥, 장밋빛 발진은 장티푸스를 식별하는 핵심 단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네 질환 모두 여름철이나 분변-경구 전파와 연관될 수 있어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이라는 단서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이 문항에서는 '고열·서맥·장밋빛 발진'의 묶음이 장티푸스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염병 문항은 전파 경로만 보지 않고 주된 침범 부위와 대표 증상을 함께 대조한다. 고열·상대적 서맥·장밋빛 발진이면 장티푸스, 쌀뜨물 같은 설사와 탈수이면 콜레라, 이완성 마비이면 폴리오, 혈성 점액변과 뒤무직이면 세균성이질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장티푸스는 '고열-상대적 서맥-장밋빛 발진'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14. 〈보기〉의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감각온도는 기온, 습도,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온도를 의미한다. 감각온도 21℃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__(가)__ ℃, 습도는 __(나)__ %, 기류는 __(다)__ m/sec의 환경에 있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가)	(나)	(다)
①	18	60	1
②	21	50	0
③	21	100	0
④	21	100	0.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감각온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표준환경의 기온, 습도, 기류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각온도는 기온·습도·기류가 인체의 온열감각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온도로 나타낸 지표이다. 어떤 환경의 감각온도가 21 ° *C*라는 것은 그 환경에서 느끼는 온열감이 기온 21 ° *C*, 습도 100%, 기류 0*m/sec*인 포화·정지 공기에서의 온열감과 같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기온 18 ° *C*, 습도 60%, 기류 1*m/sec*는 감각온도 21 ° *C*를 정의하는 표준환경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기온 21 ° *C*, 습도 100%, 기류 0*m/sec*이다.
② X — 습도 50%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기온 21 ° *C*, 습도 100%, 기류 0*m/sec*이다.
③ O — 기온 21 ° *C*, 습도 100%, 기류 0*m/sec*는 감각온도 21 ° *C*의 기준환경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 기류 0.5*m/sec*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기온 21 ° *C*, 습도 100%, 기류 0*m/sec*이다.

오답 포인트

감각온도가 여러 환경요소를 종합한 값이라는 설명 때문에 실제 환경의 기온·습도·기류를 고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은 감각온도의 기준환경인 포화공기와 정지공기, 즉 습도 100%와 기류 0*m/sec*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각온도가 *T* ° *C*라고 제시되면 기준환경을 기온 *T* ° *C*, 습도 100%, 기류 0*m/sec*로 대응시킨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감각온도 기준환경은 같은 기온, 습도 100%, 기류 0이다.

NoteBase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건강진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① 임시건강진단 ② 수시건강진단
③ 특수건강진단 ④ 배치전건강진단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여러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하여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임시건강진단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의 해당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배치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핵심 구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임시건강진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기의 핵심 표지는 '같은 유해인자', '유사한 질병 증상', '명령', '특정 근로자'이다. 수시건강진단은 개별 근로자에게 의심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나타난 경우이고, 임시건강진단은 집단적인 이상 징후 등에 대응하는 명령형 건강진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하여 명령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게 실시하므로 임시건강진단이다.

② X —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의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틀린 표현: 수시건강진단. 올바른 표현: 보기의 건강진단은 임시건강진단이다.

③ X —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틀린 표현: 특수건강진단. 올바른 표현: 보기의 건강진단은 임시건강진단이다.

④ X —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배치 전에 실시한다. 틀린 표현: 배치전건강진단. 올바른 표현: 보기의 건강진단은 임시건강진단이다.

오답 포인트

‘질병 증상 발생’이라는 말만 보고 ② 수시건강진단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보기에는 한 근로자의 의심 증상이 아니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증상이 발생했고, 행정기관의 명령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실시한다는 표지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는 임시건강진단의 요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건강진단의 실시 계기를 먼저 확인한다. 정기적인 유해인자 노출 관리는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업무 적합성 평가는 배치전건강진단, 개별 근로자의 의심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은 수시건강진단,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여러 근로자의 유사 증상과 행정기관의 명령은 임시건강진단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집단 유사 증상과 명령은 임시, 개인 의심 증상은 수시, 유해업무 정기 검진은 특수, 배치 전 적합성 평가는 배치전이다.

NoteBase

16. 〈보기〉 중 세균의 체외 독소를 변질시켜 약하게 만든 순화독소(톡소이드)를 주사하여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파상풍	ㄴ. 홍역
ㄷ. 장티푸스	ㄹ. 디프테리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세균이 만드는 외독소를 무독화한 순화독소(톡소이드) 백신으로 예방하는 감염병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화독소(톡소이드)는 세균의 외독소에서 독성은 없애고 항원성은 남겨 만든 백신이다. 대표적인 대상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이다. 홍역은 약독화 생백신으로 예방하며, 장티푸스 백신은 Vi 다당질 백신이나 경구용 약독화 생백신 등이 사용되므로 톡소이드 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파상풍은 톡소이드 백신의 대상이지만, ㄴ 홍역은 약독화 생백신의 대상이다. 틀린 조합은 'ㄱ, ㄴ'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② O — ㄱ 파상풍과 ㄹ 디프테리아는 모두 세균 외독소를 무독화한 톡소이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③ X — ㄴ 홍역은 약독화 생백신의 대상이고, ㄷ 장티푸스도 톡소이드 백신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 조합은 'ㄴ, ㄷ'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④ X — ㄹ 디프테리아는 톡소이드 백신의 대상이지만, ㄷ 장티푸스는 Vi 다당질 백신 또는 경구용 약독화 생백신 등의 대상이다. 틀린 조합은 'ㄷ, ㄹ'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오답 포인트

문제는 단순히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외독소를 변질시킨 톡소이드'를 묻는다. 홍역과 장티푸스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백신의 재료와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독소를 무독화한 백신'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먼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찾는다. 단순히 예방접종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홍역이나 장티푸스를 고르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톡소이드의 대표 짝은 파상풍·디프테리아이다.

NoteBase

17. 구강보건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보건소장이 계획하고 시행한다.

③ 학교 구강보건사업에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양치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한다.

④ 학교 구강보건사업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는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05퍼센트로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주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시행 주체,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의 횟수와 농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사 주기와 사업 주체, 양치 횟수별 불소용액 농도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적정 농도의 불소용액으로 입안을 헹구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이다.

핵심 구분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계획은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수립한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불소용액 양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 실시하며, 농도는 매일 1회이면 0.05퍼센트, 주 1회이면 0.2퍼센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맞지만, 조사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틀린 표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X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보건소장은 사업관리자가 맡기는 불소농도 측정·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보건소장이 계획하고 시행한다.
올바른 표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O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불소용액 양치 횟수는 매일 1회 또는 주 1회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④ X
주 1회 양치할 때 사용하는 불소용액의 농도는 0.05퍼센트가 아니라 0.2퍼센트이다. 0.05퍼센트는 매일 1회 양치할 때의 농도이다.
틀린 표현: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05퍼센트로 한다.
올바른 표현: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2퍼센트로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5년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혼동하기 쉽고,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이다. 또한 ②에서는 보건소장이 일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혼동하면 안 된다. ④에서는 0.05퍼센트와 0.2퍼센트를 양치 횟수와 반대로 연결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강보건법령의 숫자·주체 문제에서는 조사와 계획을 먼저 구분한다.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3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연결한다. 불소용액은 자주 양치할수록 낮은 농도를 사용하므로 매일 0.05퍼센트, 주 1회 0.2퍼센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태조사 3년, 불소양치 매일 0.05퍼센트·주 1회 0.2퍼센트이다.

NoteBase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옳게 나열한 것은?
① 두창, 디프테리아, 신종인플루엔자
② 수족구병, 폴리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③ 수두, A형간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④ 레지오넬라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탄저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선지에 제시된 감염병이 모두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 또는 집단 발생 위험이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핵심 구분

현행 법률상 두창, 디프테리아,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탄저는 제1급감염병이다. 반면 폴리오와 A형간염은 제2급, 레지오넬라증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제3급, 수족구병은 제4급감염병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두창, 디프테리아, 신종인플루엔자는 모두 제1급감염병이므로 옳다.
② X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만 제1급감염병이고, 수족구병과 폴리오는 제1급감염병이 아니다. 틀린 표현: '수족구병, 폴리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모두 제1급이라는 묶음. 올바른 표현: 수족구병은 제4급, 폴리오는 제2급,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제1급감염병이다.
③ X — 두창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은 제1급이지만 A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이다. 틀린 표현: '두창, A형간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모두 제1급이라는 묶음. 올바른 표현: 두창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은 제1급, A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이다.
④ X — 탄저는 제1급이지만 레지오넬라증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제3급감염병이다. 틀린 표현: '레지오넬라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탄저'가 모두 제1급이라는 묶음. 올바른 표현: 레지오넬라증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제3급, 탄저는 제1급감염병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④는 제1급감염병을 한 개 이상 포함해 정답처럼 보이게 만든 혼합 선지이다. 한 질병만 확인하지 않고 세 질병의 급수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1급감염병 묶음을 묻는 문제에서는 각 선지의 질병을 하나씩 급수에 대응시킨다. 하나라도 제2급·제3급·제4급이 섞여 있으면 그 선지는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두창·디프테리아·신종인플루엔자는 모두 제1급이며, MERS·SARS·탄저도 제1급이다.

NoteBase

19. 진료비 지불제도 중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편화
②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③ 계산의 단순화로 행정관리비 절감
④ 과잉진료 방지로 의료비 상승 억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행위별수가제의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행위별수가제는 진찰·검사·처치 등 의료인이 제공한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을 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진료량 증가와 과잉진료를 유발하여 의료비가 상승하기 쉽고 청구·심사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행위마다 진료비를 산정하고 청구해야 하므로 청구 항목이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편화'이며, 올바르게는 '진료비 청구와 심사가 복잡해질 수 있음'이다.
② O — 제공한 의료행위별로 보상하므로 의료인이 필요한 진료와 새로운 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생겨 양질의 고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③ X — 개별 의료행위마다 비용을 계산·청구·심사해야 하므로 계산이 단순해지지 않으며 행정관리비가 늘 수 있다. 틀린 표현은 '계산의 단순화로 행정관리비 절감'이며, 올바르게는 '계산과 심사의 복잡화로 행정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음'이다.
④ X — 의료행위를 많이 제공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므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과잉진료 방지로 의료비 상승 억제'이며, 올바르게는 '과잉진료 가능성으로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음'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행위별로 세분하여 계산하면 청구와 관리가 간단해질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실제로는 청구·심사 항목이 늘어 복잡해진다. ④는 행위별 보상이 진료량을 늘리는 유인이라는 점을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 하나마다 보상한다’는 기준에서 판단한다. 진료 제공과 의료기술 발전의 유인은 커지지만, 진료량·청구 항목·심사 업무와 의료비도 함께 증가하기 쉽다.

암기 포인트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발전에는 유리하지만, 과잉진료·의료비 상승·행정 복잡성이 단점이다.

NoteBase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제40조 제4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하였으나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7조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입·퇴원등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그 기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69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에서 위반행위별 법정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유기·퇴원 거부, 기록 미삭제, 무단 녹음·녹화·촬영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과 형량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법정형 = 법률이 특정 범죄에 대하여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상한 또는 하한이다.

핵심 구분

현행 법률상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정신질환자 유기와 제41조제2항 등을 위반한 퇴원등 거부는 제8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제4항을 위반한 기록 미삭제는 제8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69조제2항을 위반한 무단 녹음·녹화·촬영은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제8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옳다.

② X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했는데도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을 시키지 않은 행위는 제84조의 적용 대상이지만, 법정형은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 이하가 아니다.
틀린 표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표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X
제6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본인 기록의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제85조의 적용 대상이다.
틀린 표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표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X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한 행위는 제86조의 적용 대상이다.
틀린 표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올바른 표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답 포인트

②~④는 위반행위 자체는 실제 처벌 대상이지만 법정형만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퇴원등 거부는 유기와 같은 제84조의 5년·5천만원형이고, 기록 미삭제와 무단 촬영은 각각 더 낮은 제85조와 제86조의 법정형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가 금지되는지만 판단하지 않고, 각 위반행위가 제84조·제85조·제86조 중 어느 벌칙 단계에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함께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유기·퇴원 거부는 5년·5천만원, 기록 미삭제는 3년·3천만원, 무단 촬영은 1년·1천만원이다.

NoteBase